



## 금남·충장로 건물값 폭락

### 도청이전·부동산대책 이후 거래 끊겨 공실률 18.2%...광주 평균 2배 달해 보증금·임대료도 하락...건물주 3중고

‘호남상권 1번지’로 불려온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 부동산 가격이 도심 공동화와 전남도청 이전 이후 곤두박질치고 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한 철거작업이 본격화되고 도청 이전이 6개월째 접어들면서 구 도청 인근 지역에는 자가급락과 건물값 추락이라는 부동산 한파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일 광주 동구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청 이전을 전후로 관내 부동산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 최근 1~2년새 동구내 상당수 건물주들이 건물로 내놓거나 매매를 고려하고 있지만 도청 이전과 ‘8·31 부동산대책’ 등으로 인해 거래 자체가 자취를 감췄다.

광주시 동구 금동에 위치한 G모델의 경우 시세보다 15% 이상 싼 값에 매물로 나왔지만 1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고 있다. 또 동구 공동의 모빌딩은 최근 평당 750만원에 새주인을 만났다. 하지만 200여평에 달하는 이 건물의 경우 도청 이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평당 1천만원에 호가했다는 점에서 동구내 건물 하락세를 실감케 하고 있다. 건물주의 입장에선 불과 1~2년새 5억원(25%) 가량의 손해를 본 셈이다.

땅값도 크게 떨어졌다. 지난달 초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100여평의 택지가 2억원을 밀도는 가격으로 팔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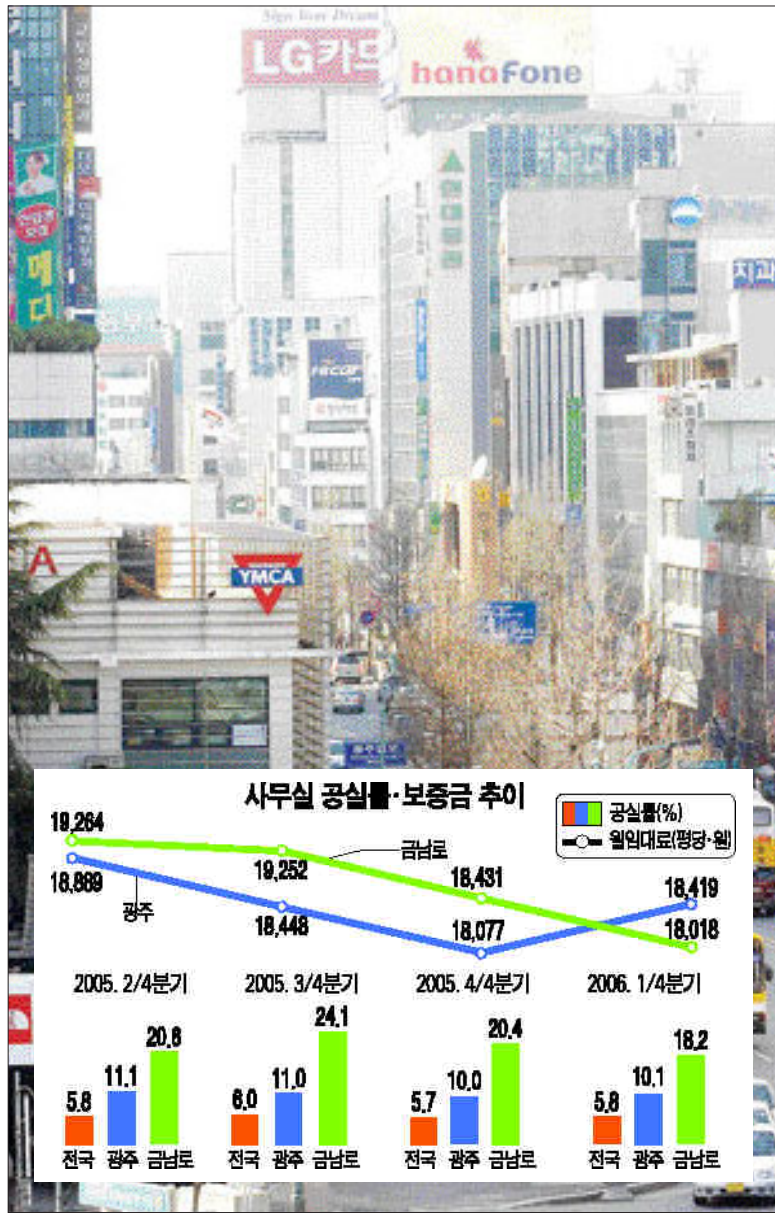
것을 비롯해 동구 전역의 땅값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해당 택지의 땅값이 시청 이전 전인 2004년에만 하더라도 3억~3억5천만원대에 달했다는 것은 이미 옛말이 된 것이다.

건물주들의 시름은 이뿐만이 아니다. 우선 동구 관내에서 충장로 등 일부 상권을 제외하고는 1층 상가라도 꾸준히 세가 나가는 건물은 운이 좋은 편에 속할 만큼 입주자의 발걸음이 뜰 줄였다.

또 장기입주 상인들의 타지역 유출도 심각한 ‘이중고’가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동구내 사무실의 공실률 및 보증금 추이 등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샘스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동구 금남로의 사무실빌딩 공실률은 18.2%로 광주 평균 공실률 10.1%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아졌다.

반면 동구지역 상권의 보증금과 월임대료 등은 연일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현재 금남로의 평당 보증금은 18만3천557원으로 도청 이전 직전인 지난해 3·4분기 19만3천689원보다 5.23%(1만132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월 임대료도 평당 1만9천252원에서 1만8천181원까지 떨어져 6.41%(1천234원)의 하락세를 보였다.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동구에서 폐업한 음식점은 무려 296곳에 달한다. 동구지역 음식점이 2천272곳이라는 점을 감안



광주시 동구 구 도청 인근의 공동화현상이 심화되면서 동구지역내 부동산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2일 동구 금남로의 빌딩숲만이 과거 지역내 금융기관 및 사무실 밀집지역임을 말해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하면 6개월새 13%의 음식점이 문을 닫거나 타지역으로 이사한 것이다. 동구 금동에 4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김모(57)씨는 “과거에는 시내에

건물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부자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애물단지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보성 ‘美 유니버설 스튜디오’ 들어오나

### 한국 책임자 답사...오늘 투자설명회

세계적인 영화 테마파크인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한국 내 입지장소로 보성군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2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유니버설 스튜디오 관계자가 보성군 관내 일부 지역을 방문하고 몇몇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의향을 밝혔다.

최근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한국내 건설부분을 맡고 있는 제이 프랭크 베너(Jay Frank Venor) 콜드스톤 개발투자회사 사

장이 서류심사를 통과한 보성군을 직접 방문해 현지확인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측의 이번 입지조사 결과에서 보성군은 사회적 집시시설 등 주변 여건이 다소 부족하지만 기후조건이나 발전 가능성 부문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측은 이에 따라 3일 보성군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 예정으로 있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발표될 지

주목된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한국내 투자사업은 모두 4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 200만평 규모에 영화와 관계된 각종 오락시설은 물론 인구 5만명 정도의 신도시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보성군은 유니버설 스튜디오측이 투자계획을 확정할 경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실현에 나설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참여정부의 혁신도시보다도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말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 社 告

### 제6회 남녀고용평등 강조 주간

#### 오늘부터 5일간...퍼포먼스 등 행사 다채

광주일보사는 광주지방노동청(청장 이기권)과 공동으로 ‘제6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월 3일~4월 7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바뀐 노동법과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장에서는 고용평등과 관련한 영상물이 상영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용 CD도 나눠드립니다. 행사기간 중에는 시민들과 함께 고용평등 문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퍼포먼스·퀴즈박스·페이스 페인팅 등 홍보 캠페인(4월6일 : 금남지하상가 분수대) ▲고용평등 정책설명회(4월7일 : 광주지방노동청 회의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념식 : 4월 3일(월) 오후 3시
- 장 소 :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 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세미나실
- 문 의 : 광주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062)220-7351

光州日報社·광주지방노동청

## 버시바우 美대사, 광주비엔날레 명예대사

관문점에서 록 페스티벌을 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을 끌었던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2006광주비엔날레 명예대사(Goodwill Ambassador)로 위촉됐다.

광주비엔날레의 국내외 홍보를 위해 버시바우 대사를 명예대사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록 음악을 통한 대중외교로 유명한 버시바우 대사는 예술대 재학시절 록



밴드에서 드러머로 활동했으며, 문화·예술에도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사관저에서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당한 뉴올리언스 지역 재

건을 돕기 위해 버시바우 대사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비엔날레로 유도하기 위해 명예대사를 제안, 버시바우 대사로부터 흔쾌히 승낙을 받았다.

비엔날레는 또 가수 김장훈씨를 광주비엔날레 가수로 위촉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후원학원 장학 6.6년 역사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ju.ac.kr  
▶ 행정전화: 062-970-0114 ▶ 062-970-5000-9

새로운 미래를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ram.ac.kr  
▶ 행정전화: 062-5021 ▶ T.061-360-5000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 정기간행물, 정기구독, 무료자료 등 서비스

▶ 24시간 한국물가정보

TEL: 1577-7300 FAX: 152773-4802

**우리들의 빛 어린이 그림대회**

한국전력공사